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6.02.11.)

[illegible]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6.02.11.)

있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회에 같이 보고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배석 박찬민) 네, 평의원회 자문 전 적립금 용도변경 및 사용 계획 승인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건물감가상각 상당액은 용도에 맞게끔 쓰게 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용도 변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중 도서관 건축이나 학생 복지회관 건축은 일반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건축·시설 관련 기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적립금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뒤 페이지에 적립금 관련 법령 및 근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행정래) 이에 대해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시로 장학기금 본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면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2025년 대비 2026년 예상 장학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배석 박찬민) 적립금 인출은 실제 교내 장학금 비중과 같지 않습니다. 건축 기금도 건축물 관리비나 기숙사 관리비의 일부이고 장학기금의 인출 금액 5억 200만 원도 저희가 편성하는 교내 장학금의 일부입니다. 교내 복지 장학금 1억 5천만 원은 한 학기 분입니다. 교내 장학금 일부는 등록금 회계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행정래)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가 기관평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배석 박찬민) 기관평가 인증이나 감정 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은 추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교내 장학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인 장학생이나 성인 학습자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부 수업료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의장 한건환) 자료에는 편성 근거가 없고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석 박찬민) 2026학년도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인출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기금이 본 예산서의 산출내역서에 매칭이 된 것입니다.

(의원 행정래) 그렇다면 이후 잔여 적립금이 없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배석 박찬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예산 편성 시 올해 약 40억 규모가 소요된다면 2027학년도에는 편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장 한건환) 의견 더 있으십니까?

(전체 의원) 없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안번호 제2025-8-2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변경 및 사용 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의장 한건환) **제2025-8-3호 안건은 “2026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배석 박찬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 한건환)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이우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인 학생 위원께서 연구·학생 경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생에게 편성되는 경비인 만큼 연구·학생 경비의 세부 명세와 변동 사항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석 박찬민) 일단 연구·학생 경비의 비중에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국고 지원의 지원금 비중이 큼니다. 대학 입학 지원이나 재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국가장학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구·학생 경비 감소는 학령 인구, 재학생 수의 감소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동 및 편성 사항은 학생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견 드립니다. 2026학년도 예산은 입학 정원의 70%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배석 박찬민) 네, 2025학년도에는 60%로 편성을 했으나 실제 등록 학생의 비중은 입학 정원의 약 63%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기에 1차 추경 때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장 한건환) 2026학년도 등록금이 올라간 건 아닙니까?

(배석 박찬민) 2025학년도 15차 교무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책정(안)이 원안의결되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의원 행정래) 이 본예산안은 재정지원사업비 대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배석 박찬민) 지출 설명 시 일부 반영한 내역으로 보수의 일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셨던 대로 혁신지원사업이나 RISE 사업에서 실제로 반영됐던 부분과 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 운영이 유지될 시 감액 가능으로 명시를 하였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문에서는 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비가 축소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나 환경 구축,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교비가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해 주시면 지원금 사업으로 조금씩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한건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 의원) 없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안번호 제2025-8-3호 “2026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의장 한건환) **제2025-8-4호 안건은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지침 자문(안)”입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장인 교무처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6.02.11.)

(배석 한규진)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 한건환)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우준) 2026학년도 변경 교양 교과목으로 커리어디자인에서 요즘 트렌드가 AI이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맞게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장 한건환) 대덕대학교를 상징하는 교과목이 현재 있습니까?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비전, 인재상, 핵심 역량들이 교양 과목에 녹아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석 한규진) 신규 개정한 교과목 중 글로벌반려동물문화와소통, 로컬 이노베이션과 같은 과목 등이 지역 발전과 사회안전망과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 교과목입니다. 대학 인재상과 비교하면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부합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건환) 2년제 전문대학 부문에서 교육부에 심사받을 시에 대학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타 대학과 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덕대학교의 브랜드화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반영해서 시커리어디자인과 같이 명칭이 우리 비전과 인재상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면, 대덕대학교의 이미지 개선이나 정부 프로젝트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배석 한규진) 말씀해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장 한건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체 의 원) 네 없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안번호 제2025-8-4호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지침 자문(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의장 한건환) **제2025-8-5호 안건은 “2026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 제정 심의 결과 자문(안)”입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석 한규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 한건환)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맹정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인데, 혹시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배석 한규진) 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합계 수치에 관한 확인과 실습·이론 교과목의 배분 비율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학과별로 교과목에 관한 내용이나 명칭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교육기관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장 한건환) 특정 학과 명칭에 ‘K-’가 붙은 것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것입니까? 대덕대학교에서만 표기한 것입니까?

(배석 한규진) 실제로 ‘K-’ 표기를 통해 학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K-컬처계열과 K-국방계열로 통합하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대외 홍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서도 K-컬처계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우준) 학점초과사유서를 제출한 학과들이 편성 학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배석 한규진) 계열별로 분리하여 확인해 보면 실제 수강 학점은 80학점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원 남택영) 이전 K-디자인과가 리빙디자인과와 시각디자인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두 과의 수업이 많이 다름에도 88학점 이내로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제정은 학교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 맹정래) 학생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건환) ‘K-’ 표기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습니까?

(의원 남택영) 현재는 운영을 더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견이지만 대덕대학교에서 ‘K-’ 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입장에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의원 남택영) 이전에는 대덕대학교에서 국방군사학과를 첫 번째로 내세웠으나, 현재 K-컬처계열을 최상단에 노출시켜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우준) 추가 의견 드립니다. 기계공학과 3년제가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2026학년도에 신청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 해당 과정을 오는 3월부터 반영하여 시작하는 것인지 신청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배석 한규진) 사업을 신청하여 수행할 계획에 있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K-디자인과는 두 개의 학과가 합쳐지면서 최대한 공통과목을 학생들이 계열별로 수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입니다. K-외식조리과의 경우는 제과제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과목들이 증가하여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뿌리 산업에 대한 사업을 위해 두 개의 트랙을 운영하여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의장 한건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 의 원) 없습니다.

(의장 한건환) **의안번호 제2025-8-5호 “2026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 제정 심의 결과 자문(안)”은 원안**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6.02.11.)

대로 자문하였습니다.

라. 기타안건

(의장 한건환) 기타안건은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입니다.

의장 한건환, 교원의원 남택영, 직원의원 맹정래로 진행하는 것 어떠십니까?

(전체 의 원) 동의합니다.

마. 폐회선언

(의장 한건환)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 붙임 1.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위원회 참석 현황 1부.
2. 대학평의위원회 외부 평의원 수당 지급 계좌 및 참석 확인 각 1부.
3. 관련문서 1부. 끝.